

權氏列傳 봉우 권태훈 (鳳宇 權太勳, 추밀공파 33세) 제3편

“간도광명(良道光明)이라 중명(重明)하니 백두산족 대도인이 세계인류평화를 건설하리라!”



소설 <단>의 주인공 '봉우 권태훈' 선생이 예언하기를 동쪽에서 인류 시원 문명이 나왔고, '황백전환기(黃白轉換期: 동양이 주도하는 세계)'를 맞아 서방의 기운은 물러가고 한국, 인도, 중국을 중심으로한 동방의 시대가 오고, 그 중 백두산족인 '코리안'은 '백산문화론(白山文化論: 코리안의 시대 도래)'에 따라 상나라(殷) 멸망 이후 3000년의 고통기를 지나 인류평화를 선도하는 새로운 3000년이 열린다. 2024년으로 비정하여도 무방하다.

2014년쯤 가야 실질적인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했으나, 우리나라의 남북통일 시점은 한나라만의 운수가 아닌 세계사의 운명과 그 맥을 같이하는 '천기누설'이기 때문에 봉우선생이 이리저리 둘러 말한 것 같다고 유추하기도 한다.

또 비록 연도는 맞지 않았으나 통일의 기운이 지난 보수정권 10년에 의해 어긋난 것을 제하고 나면 아직 틀린 말도 아니다. 2024년으로 비정하여도 무방하다.

'대운'은 1954년에 시작한다 해서 청마대운(靑馬大運)이라 흔히 부른다. 1954년 이 말의 해라 청마(靑馬)를 상징한다. 이 청마대운이 1954년부터 천(天) 15년, 지(地) 15년, 인(人) 15년씩 45년 동안 기운을 쌓고, 즉 1999년까지 백산대운의 기운이 쌓이는 기간이요, 이후 15년까지 즉 2014년까지 대운이 현실적으로 나타나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1999년까지는 변화의 기운이 축적되어 지고, 2000년부터 2014년까지 변화의 실질적 성과가 가지적으로 나타난다는 예시이다.

청마대운(靑馬大運)에 백산문화시립길조(白山文化始入吉兆: 코리안의 운세가 대동하는 것으로 집근)라 하였는데, 바로 이를 뜻한다.

세계문명의 주도권을 바꾸는 황백전환(黃白轉換) 역시 2044년 이전에 완성되며, '황백전환'이란 인간성을 상실하고 천지간에 부조화를 초래한 서구 물질문명(황금만능, 환경파괴, 철학상실)의 폐해점을 천지 자연의 조화성을 회복하여 정신과 물질과의 균형있는 발전을 이룩해낸 한국, 중국, 인도의 새로운 문명의 제시로서 이루어지는데, 그 출현의 장신적 기반이 바로 '코리아'에서 나온 대도인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대도인이라 것은 1953년 출생일이 유력하고, 1954년 또는 1959년 출생일 등이 있으나 좌우간 1950년대 안에 출생했다는 것은 일치한다. 현재 남한내

에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다른 하늘의 기운으로서 삼육성종(三六聖宗)을 들 수 있는데, 이 서른 여섯명 안에 대도인도 속해있다. 이들 역시 이 시기에 36명중 24명은 '남코리아'에 있고 12명은 북코리아에 있다고 한다.

이들의 使命은 백산문화에 도움이 될 각계각층의 인물들로서 반드시 도인들로만 구성된 것은 아니며, 평범한 사람으로 대운을 맡아 타고난 사람들도 있다. 대도인은 정신계의 타고자로서 세계인류가 갈구하는 진리만을 설파하고 이분의 법이 향후 오천년간 백산대운의 평화세계를 이끌어가는 토대가 될 것이다.

그렇다고 공자, 석가 예수 등 기존 성인의 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그것들을 더욱 보충하고 새시대에 맞는 정신철학으로 통합시켜 이전시대에 없던 새로이 확장된 대도(大道)를 개척, 선포한다는 주장이며, 도인이야말로 화피초목(化被草木: 덕화가 사람, 짐승, 초목에까지도 미침)하고 퇴급만방(頹及萬邦: 전세계에 퍼져나감)할 인물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봉우 선생의 '대도인 대망론'은 말 그대로 시대를 초월하여 민중의 소망을 담은 메시아, 미륵불, 큰바위 얼굴을 의미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비록 특정 연령, 지역을 지칭하기는 했지만 이 또한 근거 없는 것도 아니다.

53-59년생은 60세 중반으로 가장 많은 출생자를 가진 세대이며, 30대 자식을 안고 90세 아버지를 업고 가는 장수시대에 막중하고도 고난한 세대이기도 하며, 전환시대에 중요한 역할이 기대되는 세대이기도 하다.

그러면 그 대도인이라 누구인가? 바로 우리이며 내가 그 주인공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일찍이 도산 안창호선생은 "인물이 없다고 탄탄하는 그 자신이 왜 인물될 공부를 하지 아니하는가?"라고 했다.

'민족정기를 살리고, 민족을 위해 불의에 항거하고, 민생을 위해 밤 낮없이 분주

한 하늘이 하루 종일 운통 뽀얗다. 방송과 인터넷의 날씨예보에 미세먼지 항목이 추가되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에 따라 외부활동을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할 정도다. 밖에 나가더라도 마스크 착용은 이제 필수가 되었다. 이리다 방독면 쓰고 다니는 날이 곧 올지도 모르겠다는 불안감마저 든다. 이런 심각한 상황을 감안해서인지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특별위원회까지 신설했다.

미세먼지 이전에는 주로 봄철에 미세한 노란 모래인 황사가 중국의 고비사막과 몽골의 건조한 지역에서 편서풍을 타고 날아왔다. 옛날부터 '흙이 비처럼 떨어진다.'고 해서 우토(雨土) 혹은 토우(土雨) 즉 흙비라고 불렀다.

이런 황사의 이동경로 때문인지는 몰라도 4-5월에는 미세먼지 국가전략 프로젝트 사업단에서 하늘에 올라가 미세먼지의 원인이 중국발인지 국내요인인지를 관측한다고 한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범국가적 차원에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미세먼지 범국가대책기구위원장을 수락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지난 여름에는 날씨가 유난히도 무더웠다. 서울은 역대 최장 열대야를 기록했고 남부 쪽은 폭염이 지속되기도 했다. 도시 빌딩 숲 사이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그야말로 뜨거운 바람이었다. 숨이 턱턱 막히도록 최고 40도를 오르내렸다.

1978년부터 자료가 수집된 인공위성 측정 결과들은 북극해의 연평균 빙하 표면적이 매 10년마다 거의 3%씩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름철 표면적 감소는 그보다 훨씬 더 커서 7%에 이른다고 한다.

이처럼 변화하고 있는 기후환경을 보고 일각에서는 이리다 지구가 망하는 것 아니냐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한다.

《제3의 길 The third way》로 유

기후와 역사

명한 영국의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Anthony Giddens)는 《기후변화의 정치학》(2009)이라는 책까지 출판했다. 1988년 유엔에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위원회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를 설립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그 영향을 관측하는 가장 권위 있는 기구이다. 이처럼 인간은 기후환경 변화에 적응하면서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럼 기후는 인류의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20-30년 전만해도 역사를 공부할 때 기후라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기후라는 변수를 추가해서 역사적인 현상을 설명하면 역사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E.H.Carr라는 역사학자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강조했다.

즉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현재의 정치적 위치와 관점에서 현재의 개념(concept)으로 재해석하고 재구성할 수 있음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지금 여기 현재에서 본 과거라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는 움직인다. 오늘의 현재와 50년 전 100년 전의 현재는 다르다. 역사적 사실은 불변인데 역사가 계속 진화 내지 변화하기 때문이다. 기후 또한 변화한다.

그래서 기후라는 시각을 역사에 투영하면 나라의 흥망성쇠를 전혀 다른 각도에서 볼 수도 있는 하나의 입각점을 확보하게 된다.

멕시코의 최고 문명이었던 아즈텍 문명의 경우는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렸다. 문명 자체도 없어져 버렸고, 사람도 사라져 버렸다. 도시도 다 땅에 묻혀 버렸다.

기상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기상사일로 설명한다.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기온으로 설명한다. 아즈텍 문명의 경우 최소 17년에서 최장 30년 동안 비

가 거의 오지 않았다고 한다. 물이 없어 식물이든 동물이든 모든 생물은 다 죽었다고 한다.

마땅한 교통수단도 없어 멀리 이동하기도 어려웠다. 대원제국이 멸망한 이유로 기후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한다. 몽골의 기후는 대개 10년 주기(Cycle)로 '주드'(zud)가 온다고 한다.

겨울에 추워지면서 눈이 오고 눈이 채 녹기 전에 기온이 영하 40도 정도로 급격히 떨어지면 몽골 초원이 전부 얼음판으로 변한다. 초원에는 말, 양 등 동물들이 뜰먹을 풀 한포기 조차 없게 되어 기축이 다 굶어 죽게 된다. 몽골사람들은 이런 겨울철 기후현상을 주드라고 한다.

요즘이야 다른 식량으로 대체가 가능하지만 옛날에는 이처럼 주드가 오게 되면 몽골인들은 말을 타고 식량이 있는 곳으로 이동했다.

조선조가 망한 것도 기상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한다.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 즉 정조 후반부터 철종과 순종 때까지 약 20-30년 동안 몹시 가물었다.

일본도 19세기 초 인구 전체를 먹여 살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 농사짓는 농민들은 식량이 모자라 자기 자식을 다 살릴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다만 몇 명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부모가 제비를 뽑아 밤에 자기 자식을 산에 데리고 가서 죽이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한다.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굶어 죽일 수는 없어서 바다 건너 조선에 논도 있고 식량도 있으니 쳐들어가지고 했다는 것이다.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의 정한론(征韓論)이 발생하게 된 기상학적 설명이다.

기후라는 변수를 고려해서 역사를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역사를 다르게 설명할 수 있고 역사를 이해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는 듯하다. 현재는 계속 움직인다. 때문에 역사도 계속 진화할 수밖에 없다. 지금도 현재와 과거는 끊임없이 대화하고 있다.

편집국장 권행완

안동권씨 종보 대금 납부 안내

종보 대금 **3만원** 납부는 100만 족친의 번영과 화합의 상징입니다.

예금계좌 : 농협 317-0009-7471-41(안동권씨 대총회)
문의전화 : 02)2695-2483~4

안동권씨 대총회

서울마포종친회 월례회

회원여러분의 가정에 화목·건강·행운이 함께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마포종친회 월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이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19년 4월 25일(목) 오후 7시
장소 : 우가촌(가마솔설령탕) 02-702-5047, 010-5358-2840
오시는길 : 지하철5호선 공덕역5번 출구·지하철6호선 공덕역6번 출구
연락처 : 회장 권승구 02-718-8437, 010-6271-8437, 총무 권경탁 010-3796-4047

2019년 4월 1일

안동권씨 마포종친회 회장 권승구

광고, 독자투고, 구독 신청하세요

안동권씨 종보에서는 기업광고, 단체모임 등의 광고와 독자들의 투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종보는 안동권문의 소통공간입니다. 종보는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기고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족친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동권씨 대총회

❖ 광고, 독자투고, 구독신청 연락처 ❖
☎ 02)2695-2483~4
FAX 02)2695-2485
E-mail ankwon2695@naver.com
andongkwonmun@daum.net
종보 대금 납부 계좌번호: 안동권씨 대총회 033237-04-006941(국민)

서울산악회 정구산행 안내 (제294차)

일시 : 2019년 4월 21일 오전 10시(매월 3째 일요일)
등산지 : 대모산
집결장소 : 지하철 3호선 일원역 1번출구 * 시간 엄수 바랍니다.
준비물 : 도시락 지참

회장(권종훈): 010-4037-6656 등반대장(권오준): 010-3718-4204
사무국장(권오준): 010-3261-2570

2019년 4월 1일

안동권씨서울산악회 회장 권종훈